

## 기획특집

### 가족 다양성 이슈와 대응 과제

- 가족 다양성의 존중을 위한 정책·제도적 과제

송효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의 의의와 과제

박복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비친족 가구 현황과 정책적 함의

김영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비친족 가구 현황과 정책적 함의<sup>1)</sup>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 한국의 가족 구성 변화와 비친족 가구

급격한 인구구조 및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와 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1인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결혼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줄어들면서 가족 구성 양상도 변화하는 것이다. 결혼과 혈연을 통한 가족 구성 방식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왔으나 최근에는 비혼동거나 다양한 생활공동체 등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가족 구성 방식이 부상하고 있다. 1인가구 다음으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새로운 가족 형태로 비친족 가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짚어보았다.

## 2. 인구총조사를 통해 본 비친족 가구 현황

비친족 가구는 규모는 작지만 최근 늘어나는 가구 유형이다. 비친족 가구 수는 2000년 159,231가구에서 2022년 513,889가구로 354,658가구가 증가하였다. 전체 가구 중 비친족 가구의 비율은 2022년 2.4%로 2000년 1.1%에서 1.3%p 늘어났다. 비친족 가구의 가구원 수는 2022년 1,098,224명으로 전체 가구의 가구원 대비 2.2%이다. 아래 <표 1>은 비친족 가구 전체 가구원(가구주와 가구원)의 연령대별 비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다<sup>2)</sup>. 2020년 비친족 가구의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비친족 가구의 가구원은 30대 이하인 젊은 연령대의 비중이 63.0%이지만 40대 이상도 전체 가구원 10명 중 약 4명에 이른다.<sup>3)</sup> 연령대

1) 본 글은 김영란·주재선·김소영·양준영·김주현(2024). 비친족 가구 현황과 정책 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일부를 발췌 요약한 것임.

2) 통계청(2010, 2015, 202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분석.

별 비중 변화를 보면 30대 이하는 2010년 72.8%에서 2020년 63.0%로 감소하고 40대 이상은 2010년 27.2%에서 37.0%로 증가하였다.<sup>4)</sup> 비친족 가구

는 30대 이하의 젊은 연령대 비중이 높지만 최근 4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표 1〉 비친족 가구 전체 가구원의 연령대별 비중 변화

(단위: %)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010년	7.1	43.9	21.9	11.5	8.4	4.2	3.1
2015년	5.0	39.2	21.8	13.9	12.4	5.0	2.8
2020년	3.0	36.5	23.5	13.1	12.5	7.9	3.5

자료: 통계청(2010, 2015, 202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분석.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여 비친족 가구 현황을 살펴 보았다. 비친족 가구의 가구원 현황을 친족 가구 및 1인가구와 비교한 결과, 먼저 평균 연령은 비친족 가구의 가구원이 가장 낮았다. 혼인상태는 비친족 가구의 경우 미혼이 70.3%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친족 가구 및 1인가구의 미혼 비율은 각각 25.6%, 50.7%로 서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비친족 가구 가구원의 경제활동을 친족 가구 및 1인가구와 비교하면 ‘주로 일하였음’ 비중은 친족 가구(53.3%)와 1인가구(57.3%)보다 높고, ‘일하지 않았음’ 비중은 친족 가구(41.1%)와 1인가구(37.2%)보다 낮아서 비친족 가구의 가구원은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친족 가구를 가구원 수별로 보면 2인가구 78.9%, 3인이상가구 21.1%로 2인가구 비중이 높다. 가구원의 연령대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는 3인이상가구에서 더 많고 40대 이상은 2인가구에서 더

많아서 3인이상가가구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가구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미혼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2인가구인 경우 3인이상가구보다 미혼과 이혼의 비중이 약간 더 높고, 배우자 있음은 3인이상가구에서 더 높았다. 경제 활동상태는 ‘일함(주로 일하였음+틈틈이 일하였음)’이 3인이상가구(86.8%)에서 2인가구(73.3%)보다 13.5%p 더 많았다. 반면 ‘일하지 않았음’은 2인가구(24.9%)가 3인이상가구(12.4%)보다 더 높았다. 3인이상가구의 가구원이 일하는 비율은 2인가구의 가구원보다 더 많고, 일하지 않는 비율은 더 적다.

비친족 2인가구의 성별 구성에 따른 가구 비중을 보면 남+여 가구가 45.1%, 남+남 가구 34.8%, 여+여 가구 20.0%로 남+여 구성 가구가 가장 많았다. 비친족 2인가구의 가구원 전체에 대하여 성별 구성별 연령 분포를 보면 남+여 가구에서 가구원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았다. 20세 미만과 20~29세는 여+여 가구가 가장 많고, 30대는 남+여 가구, 40대는

3) 통계청(202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분석.

4) 통계청(2010, 202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분석.

남+남 가구, 50대 이상은 남+여 가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인가구의 가구원간 연령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여 가구는 가구원 간 연령 차이가 다른 성별 구성과 비교하여 적은 경향을 보이고, 남+여 가구는 1세와 2~5세 차이의 비중이 다른 가구보다 높고, 남+남 가구는 연령 차이가 큰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친족 2인가구의 혼인상태는 남+남 가구, 여+여 가구, 남+여 가구 모두 미혼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있음은 남+남 가구에서 24.2%이며, 남+여 가구 9.0%, 여+여 가구 7.2%이다.

### 3. 실태조사를 통해 본 비친족 가구 실태

#### 가. 비친족 가구 공동생활 실태

비친족 가구의 가구원 335명을 대상으로 공동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sup>5)</sup>. 실태조사 응답자의 공동생활 기간 평균은 전체 47.07개월이며 2인가구가 44.02개월로 3인 이상가구(55.22개월)보다 짧았다. 2인가구 중에서는 남+여 가구가 51.07개월로 공동생활 기간이 가장 길었고, 다음으로 남+남 가구가 41.18개월, 여+여 가구가 29.95개월 순이었다.

공동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응답자 특성별로 나눈 모든 집단에서 주거비 절감 사유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20대 이하 연령은 주거비 절감 사유가 61.4%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생활비 절감을 위해’는 50대 이상에서 43.1%로 나

타나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소득이 없는 집단도 40.0%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 수와 성별 구성에 따라서 공동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 보면 3인 이상가구는 주거비 절감이 57.1%, 생활비 절감이 42.9%, 동일 비용 대비 넓은 주거면적이 25.3%로 비용 절감 사유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2인가구 중 남+여 가구는 애정 관계 사유가 72.8%, 주거비 절감 38.2% 순이었다. 반면 남+남 가구와 여+여 가구는 주거비 절감 사유가 가장 많았다.

공동생활 이전 관계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경우가 78.2%로 알고 있던 관계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몰랐음’ 비율을 보면 3인 이상가구가 23.1%로 2인가구(9.0%)보다 14.1%p 더 높았다. 2인가구 중 성별 구성에 따라서 살펴보면 남+여 가구인 경우 ‘알고 있었음’ 비율이 9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여+여 가구(89.7%), 남+남 가구(78.0%) 순이었다.

현재 가구원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애정 관계에 기반하여 서로를 배우자와 같이 생각하는 사이’(36.4%), ‘서로 돌보고 의지하는 사이’(35.5%), ‘단순히 주거를 공유하는 사이’(28.1%) 순으로 나타났다. 남+여 2인가구는 애정에 기반한 배우자 사이로 생각하는 비율이 77.9%로 가장 많았고 서로 돌보고 의지하는 사이가 17.6%였다. 남+여 2인가구에서 현재 가구원과의 관계를 애정에 기반한 배우자 사이로 인식하는 경우는 법률혼이나 사실혼의 배우자에 준하는 사이로 서로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여 2인가구에서 서로 돌보고 의지하는 사이로 생각하는 경우도 17.6%로 남+여 2인가구 전체가 동거인을 법률혼이나 사실혼의 배우자

5) 조사 개요 및 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영란 외(2024)의 연구 “제4장 비친족 가구 공동생활 실태”를 참고할 것.

로 간주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남+남 2인가구는 단순 주거 공유(48.0%), 서로 돌보고 의지하는 사이(42.0%), 애정에 기반한 배우자와 같이 생각하는 사이(10.0%) 순으로 나타났다. 여+여 2인가구는 서로 돌보고 의지하는 사이가 4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단순 주거 공유(41.4%), 애정에 기반한 배우자와 같이 생각하는 사이(12.1%) 순으로 나타났다. 3인 이상 가구는 서로 돌보고 의지하는 사이(51.6%), 단순 주거 공유(44.0%), 애정에 기반한 배우자와 같이 생각하는 사이(4.4%)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남+여 2인가구를 제외한 비친족 가구는 주거공동체이면서 완전히 남남은 아닌 사이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공동생활 종료 시 예상 사유를 가구원 수 및 성별 구성에 따라 살펴보면, 3인 이상 가구는 ‘1인가구로 독립’(19.8%)과 ‘졸업 또는 직장 이동’(18.7%)의 비중이 높았다. 2인가구의 경우 남+여 가구는 ‘애정 관계 종료’가 65.4%로 가장 많았고, 남+남 가구는 ‘졸업 또는 직장 이동’(30.0%)이, 여+여 가구는 ‘1인가구로 독립’(37.9%)이 가장 많았다. 즉 남+여 2인가구는 애정 관계 종료의 사유 비중이 높고, 동성의 2인가구는 1인가구로 독립, 졸업이나 직장 이동, 결혼 등 사유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동거 가구원에게 의지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7개 항목 모두 가구원이 의지가 된다(약간 의지가 된다+매우 의지가 된다)는 응답이 약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별로 보면 ‘아프거나 건강상 문제’가 8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범죄 등 안전 관련 문제’(83.9%), ‘감정적 심리적 문제’(83.5%), ‘경제적 문제’(69.9%), ‘가족과의 관계 문제’(63.6%), ‘연애나 결혼 문제’(62.4%), ‘학업이나 취업 문제’(58.8%)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공동생활을

하는 가구원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상호 의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나. 비친족 가구의 특성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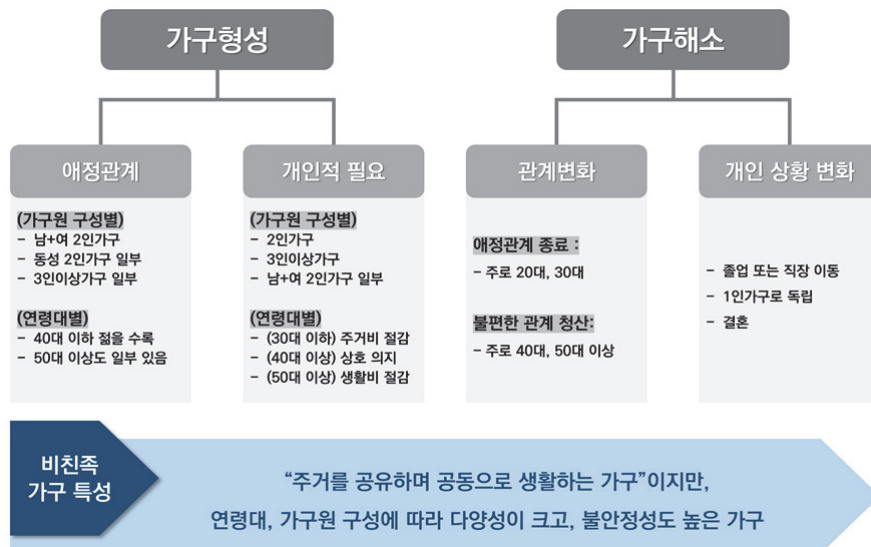
이상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비친족 가구는 기본적으로 “주거를 공유하며 살고 있는” 가구이며, 가구원은 “함께 거주하는” 사이라고 할 수 있다. 비친족 가구는 크게 애정에 기반하여 주거를 공유하는 사이와 필요에 의해 주거를 공유하는 사이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애정에 기반한 관계로 주거를 공유하는 사이는 다수의 남+여 2인가구와 여+여 및 남+남 2인가구 일부, 3인 이상 가구 일부를 포함한다. 상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거를 공유하는 사이는 대부분의 여+여 및 남+남 2인가구, 남+여 2인가구 중 일부, 3인 이상 가구들이다. 이들 가구는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취약한 자원을 보완하고자 하는 필요에 의해 타인과 함께 거주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이다. 20대는 학업이나 취업으로 주거 이동이 많은 시기이지만 높은 집값, 낮은 소득, 불안정한 일자리 등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할 수 있다. 그래서 지인이나 친구 등과 주거비 절약을 위해 동거하기 때문에 주거를 공유하는 사이라는 인식이 높다. 40대 이상은 노후를 고려하는 시기로 주거를 공유하면서 서로 돌보고 의지하는 관계로 인식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50대 이상은 은퇴가 예정되거나 시작되는 시기로 생활비 절감을 위하여 공동생활을 하는 사유가 높았다.

한편 비친족 가구는 애정 관계가 끝나거나 사이가 불편해지는 것과 같이 관계가 변화되거나 개인의 직업, 결혼, 독립과 같은 상황 변화로 인해 언제든지 쉽게 가구가 해소될 수 있다. 그 주된 사유는 20대와 30대는 애정 관계 종료, 40대와 50대 이상은 불

편한 관계의 청산을 들 수 있다. 개인의 상황 변화는 졸업이나 직장 이동, 1인가구로의 독립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 연령대에서 결혼보다는 1인가구로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높게 드러났다. 연령대 별로 공동생활 종료 사유를 정리하면 20대 이하는 애정 관계 종료>1인가구 독립>졸업 및 직장 이동 순이며, 30대는 애정 관계 종료>1인가구 독립>결혼 순으로 나타났다. 40대는 애정 관계 종료>1인가구 독립>결혼 또는 서로 불편해서였고, 50대 이상은 서로 불편해서>졸업 및 직장 이동>1인가구 독립 순이었다. 결국 비친족 가구는 애정에 기반한 사이나 필요에 의해 주거를 공유하는 사이 모두 관계의 변화나 개인의 상황 변화에 따라 쉽게 해소될 수 있는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가구이다. 이들 가구는 가족과 달리 공동생활에 대한 표준화된 방식이나 전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구원 간 경제적 부양이나 비용 분담, 식사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족과 유사한 고정관념이 작동하지 않는다. 예를 들

어 함께 살고는 있지만 식사를 의무적으로 같이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고 동등하게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구 구성원들은 상황에 맞게 역할을 분담하고 공동생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여 2인가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가구와 비교하여 전통적인 성역할을 따르는 경향을 보였다. 즉 공동생활에 대한 협의한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며, 가사노동을 동등하게 분담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현재의 비친족 가구는 연령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양성이 크고 불안정성이 높은 가구이다. 연령대에 따라 안정적으로 장기간 지속하는 가구가 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생애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함께 사는 가구인 경우가 다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친밀성과 돌봄의 대안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가족을 넘어선 ‘가족’을 적극적으로 선택한 가구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비친족 가구 특성 요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친족 가구의 공동생활 실태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의 가구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친족 가구의 가구원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친밀도가 높아져 단순 하우스메이트 이상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거비나 생활비 등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지만<sup>6)</sup> 가구원 간에 서로 돌보고 의지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문제에 도움을 받고 있고, 일정 부분 보호자 역할도 기대하는 등 완전한 타인보다는 가까운 관계로 서로 도우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남+여 2인가구는 대체로 다른 가구와 특성이 달랐다. 가구 구성 사유나 종료 예상 사유가 애정 관계에서 비롯했다는 비중이 높고 공동생활 기간도 다른 2인가구보다 길어 안정성이 약간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로를 배우자와 같은 사이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아서 남+여 2인가구는 남남이 함께 사는 비친족 가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관계에 더 가까운 가구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남+여 2인가구 이외의 가구에서는 가구원 관계를 서로 돌보고 의지하는 사이로 인식하는 경향이 적지 않으며, 남남과 가족의 중간 정도로 서로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생애 미혼율의 증가나 이혼의 증가 추세를 볼 때 가족이 아닌 새로운 친밀성을 기반으로 한 공동생활 가구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안적 친밀성에 기반한 가구는 2인가구나 3인이상가구 모두 형성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보면 가족은 혈연이나 혼인에 기반하고 있으며, 배우자 역시 혼인신고를

하거나 결혼식을 한 관계일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된다는 정상 가족 관념으로 인하여 현재 본인들의 관계에 대하여 ‘가족’이라고 명명하거나 ‘배우자’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추측할 여지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비혼동거를 선택하는 경우 현재와 같은 가족(혈연, 혼인에 기반한)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가족이나 배우자와 같은 기존의 용어로 관계를 명명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표현할 가능성도 일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비친족 가구는 가구원 수, 성별 구성과 같은 가구 특성, 그것을 구성하는 가구원 개인의 특성, 또 가구 구성 사유 등에 따라서 정책지원에 대한 욕구가 달랐다. 따라서 지원 제도는 집단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 특성별 수요를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 4. 정책적 함의

비친족 가구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하면 ‘남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족도 아닌 중간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느슨한 친밀성에 기반한 집합 가구’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가구원 관계에 대하여 서로 돌보고 의지하는 사이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남남과 가족의 중간 정도로 서로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등 친밀한 관계이다. 주거비 절감 등 현실적인 이유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였지만 1인가구로의 독립에 대한 욕구, 직장 이전이나 결혼 등의 이유에 따라 쉽게 해체할 수 있어서 가구원의 관계는 다소 느슨하고 법적으로 상호 의무도 전혀

6) 남+여 2인가구는 애정 관계 사유가 가장 높고 두 번째가 주거비 절감으로 남+남 2인가구, 여+여 2인가구, 3인이상가구와 달랐지만 비친족 가구 전체적으로는 주거비 절감 사유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없으며 권리 또한 없다. 그간 가족 구성의 유동성과 표준적 생애 경로 해체/이탈은 1인가구 증가, 비혼화, 이혼 등에 초점을 맞춰 논의해 왔다. 본 연구를 통해 주거를 공유하며 상호 돌봄과 정서적 의지를 하는 관계, 애정에 기반한 비혼동거 가구 등 비친족 가구의 현황/실태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유사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개개인은 전 생애에서 다양한 방식의 가구(가족) 구성-부모와 살다가 1인가구로 독립, 결혼했다가 이혼, 친구와 동거, 비혼동거, 다시 1인가구 등등-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가족 구성의 유동성 또한 높았다. 이에 기존의 혼인 및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상호 돌봄이나 친밀성과 같은 관계의 속성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최근 한국 가구 변화 추이를 본다면 비친족 가구는 모든 연령대에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비친족 가구의 가구원은 친족 가구 및 1인가구와 비교하여 평균 연령은 낮고 미혼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이러한 결과에서 현재로서는 비친족 가구는 젊은 연령대에서, 혼인상태가 미혼일 때 주로 구성하는 유형의 가구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40대 이상 연령대에서 비친족 가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모든 연령대에서 비친족 가구로 공동생활을 하는 경향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생애 미혼율의 증가, 이혼의 증가 등의 추세를 볼 때 연령대가 높은 경우 주로 1인가구로 생활하겠지만 일부는 가족이 아닌 새로운 친밀성을 기반으로 한 공동생활 가구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들은 공동생활을 장기간 지속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비친족 가구로서의 불안정성이 줄어들고 동거 가구원과의 관계도 가족과 유사

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개인의 돌봄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으로서의 새로운 관계성, 즉 전통적 가족 형태에서 벗어나 공동 주거와 경제적 협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의 단초로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비친족 가구는 내부 다양성이 큰 집단이다. 특히 2인가구 중 비중이 높은 남+여 2인가구는 대체로 애정을 기반으로 한 비혼동거 가구로 인식해왔고,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사실혼에 준하는 비혼동거로 볼 수 있는 집단이 다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이들도 단일한 집단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물론 남+여 2인가구 중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 배우자 관계에 근접한 경우가 많고, 대체로 남+남 또는 여+여 2인가구나 3인이상가구와 특성이 달랐다. 구성 사유나 종료 예상 사유가 애정 관계를 바탕으로 한 비중이 높고 공동생활 기간도 다른 2인가구보다 길어 안정성이 약간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로를 배우자와 같은 사이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도 높았다. 따라서 비친족 가구 중 남+여 2인가구는 사실혼에 근접한 가구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하겠다. 즉 남+여 2인가구는 다수가 비혼동거 가구였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서로 돌보는 관계이거나 (사실혼에 근접한 비혼동거가 아닌) 단순한 애정 관계인 공동생활 가구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비친족 가구로 구분되는 것은 가구대표와 가구원 관계를 배우자(사실혼)가 아니라 동거인으로 응답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실태조사에서도 배우자와 같은 사이로 응답하지 않고 서로 돌보고 의지하는 사이라고 응답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가구의 구성원은 본인들의 동거생활을 가족에 준하는 범주로 포괄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비친족 가구 중 남+여 2인 가구는 사실혼에 준하는 비혼동거와 단순 동거 관계

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수립 시 이러한 점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 참고문헌 •

- 김영란·주재선·김소영·양준영·김주현(2024). 비친족 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청(2000, 2005, 201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0, 2015, 202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데이터.  
통계청(2015~2022). 「인구총조사」.  
통계청(2020).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원자료 데이터.